

# 이재상 박사

## 형법 집중정리 강의(기초입문)

- 법행 1·2차 대비 집중정리 강의로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완벽하게 대비
- 사례형과 객관식 문제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효율적인 통합강의
-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쟁점 위주로 시험에 대비
- 형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
- 형법 중요쟁점의 체계적 정리와 선택형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한 형법 단권화 구축
- 1차 객관식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비를 위한 강의진행
- 2차 시험의 새로운 출제 경향을 대비한 형법 이론강의 추가

■ 강의일정 2020년 1/28(화) ~ 2/24(월), 오후, 월~토 강의, 총 24 회  
오후 12:30 ~ 4:20 (형법이론 대비 20분 연장)  
\* 설연휴[1/24~27] 강의없음

■ 교 재 로스쿨 형법(저자, 2020년 개정판)  
+사례대비 판례 사실관계 350선(제공)  
+형법이론 사례형문제 대비 실전문제 및 답안(제공)  
+형법기본강의 OX 복습자료(매일 제공)

■ 강의특징 ● 본 강의의 특징

1. 강의시작 전에 드리는 당부의 말씀

(1) 2020년도 시행예정인 제38회 법원행시는 벌써 약 7개월(8.22)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전 보다는 더 한층 시험대비에 박차를 가할 때입니다.

1순환 강의는 단순히 형법에 관한 기초지식을 배우는 기본강의가 아닙니다. 1순환 강의는 법행 1·2차 대비 집중정리 강의로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실전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실전에 잘 적용할 수 있는 Know-How를 쌓아나가야만 하는 강의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시험은 벌써 약 7개월 남짓 남아 있을 뿐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형법지식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빨리 익히고, 그것을 잘 정리하여 실전대비를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야만 할 때입니다.

(2) 1차 객관식 문제 강의와 2차 논문형 필기시험(사례문제) 강의는 별도로 분리된 강의가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통합강의가 되어야 합니다.

- ① 형법은 전형적으로 객관식 쟁점과 사례형 쟁점의 구별이 없습니다. 사례형 쟁점이 곧 객관식 문제로 출제됩니다. 따로 떨어진 공부가 아니라 사례형과 객관식 문제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효율적인 통합강의가 되어야 합니다.
- ② 예를 들어 제36회 법원행시 2차 시험 형법 제1문에서 출제된 판례(대판 2012.4.26. 2010도11771) 사례는 제1차 시험에서는 제31회와 제34회에서 출제된 바 있습니다. 1차 시험의 쟁점과 2차 시험의 쟁점은 절대 서로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3) '선택과 집중'이 본 1순환 강의의 모토입니다.

- 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쟁점 위주로 시험에 대비하여야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② 모든 기출판례와 기출 사례쟁점에는 기출표시를 누적적으로 하여 기출문제의 중요도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③ 강의시간에 시험 직전 확인해야 할 내용을 표시해주는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런 공부방법을 이후의 1차 시험 대비는 물론 2차 시험 대비를 위해서도 연습하고, 실제 법행 시험에도 활용할 수 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4) 총 24회 강의 기간 동안 형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하면서도 기출쟁점 및 출제예상쟁점이 잘 부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강의시간에 다루지 않는 내용은 본 시험에서 절대 출제되지 않는 내용이거나 얼마든지 혼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5) 법원행시 제37회 2차 시험에서는 형법핵심이론이 출제되었습니다. 이에 대비한 형법이론 강의를 이루어집니다. → ① 강의 회수 1회 연장 ② 하루 20분씩 연장강의

그간 법원행시에서는 형법이론이 출제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제37회 2차 시험에서 형법이론의 핵심인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등 형법이론이 사례형 내지는 단문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전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① 강의 회수를 1회 늘렸고, ② 하루 20분씩 강의를 연장하여 형법이론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 강의특징

## 2. 1차 시험을 대비한 중점적 강의진행사항

## (1) 형법 중요쟁점의 체계적 정리와 선택형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한 형법 단권화 구축

- ① 법원행시, 변시, 법전협 모의시험이나 사시의 형법과목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핵심적인 중요쟁점을 엄선하여 정리할 것입니다. 철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자주 출제되는 쟁점은 '자세하고 철저하게' 함께 정리하고, 잘 출제되지 않는 부분은 수험생 자신의 정리에 맡길 것입니다.
- ② 강의교재에 수록된 법행, 변시 등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분석, 해설하여 출제자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빈출쟁점을 뽑아내어 향후 출제될 쟁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③ 그 최적의 수단으로 본 교재의 전반에 걸쳐 확인할 수 있는 '누적된 기출표시'를 적극 활용하면 향후 출제 가능한 중요쟁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1차 객관식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비를 위한 강의진행

## ① 출제 가능성이 높은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법원행시의 출제경향은 철저하게 판례위주로 출제된다는 것입니다. 판례를 모르고는 법행 시험에 합격할 수 없으며, 반대로 판례만 제대로 공부해도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몇몇 법조문과 관련된 내용들만 정리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 ② 다만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그 많은 판례를 모두 다 습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판례 : 변시나 사시 등 각종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기출판례 + 최신 3년간 중요판례. →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시사성이 있는가, 중요쟁점을 담고 있는가, 누적된 판결의 연결선상에서 나온 판결인가,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인가 하는 것이 그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③ 판례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판례와 결론만 암기해도 되는 판례를 구분해서 공부합니다.

법행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판례의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 법행에서는 중요이론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 대신, 판례와 이론이 모두 담겨 있는 중요쟁점에 대한 실시내용은 아주 자세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판례요지를 중심으로 핵심판례의 기본취지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 반면, 판시사항을 중심으로 판례의 결론만 물어보는 지문이 가장 많이 출제되는 형태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판례를 학습하여 익히는 속도가 관건입니다.

본 강의는 출제가능 한 중요판례의 취지와 의미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둘 것입니다.

## ④ '개수 고르기' 형태의 문제를 대비한 방법론 제시

사실 '개수 고르기'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출제자가 저 구석에 있는 판례를 끄집어내서 출제하는 데 대처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은 모든 수험생들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지난 제36회 시험에서 형법 과목 컷이 제일 낮았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면서 실력을 쌓아 가능한 변수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 강의특징

⑤ 1차 객관식 문제와 2차 사례문제와 상호 연계성을 중시하는 통합적 강의진행

객관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판례의 결론만을 암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판례의 논거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원행시 문제는 특히나 변이나 사시 문제하고는 달리 판례의 논거와 결론을 함께 물어보기 때문에 지문의 길이가 아주 많이 긴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판례의 논거와 결론 부분은 그대로 2차 사례형 문제에서 답안지에 현출되는 내용으로 재활용됩니다. 왜냐하면 형법은 사실 1차와 2차의 구별이 없는 유일한 수험과목이기 때문입니다.

형법과목의 수험강의 역시 1차 객관식 문제와 2차 사례문제의 상호 연계성을 중시하는 통합적 강의진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고득점 합격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⑥ 형법조문과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정리합니다.

형법이론 문제가 불과 몇 지문밖에 출제되지 않는 대신, 형법조문과 관련된 문제는 3-4개 정도 출제됩니다. 지문으로는 5지 선다형을 기준으로 한다면, 15-20 지문 정도 됩니다.

아주 다양한 형태로 형법에 대한 기초지식들을 묻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강의교재를 중심으로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⑦ 선택형 지문의 출제방식을 꿰뚫고 있어야 하며, 이 부분을 공부합니다.

① 선택형 지문은 궁극적으로 OX 중 어느 하나의 형태로 출제됩니다.

㉠ (O)의 형태로 출제될 때에는 판례의 기본내용과 법조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X)의 형태로 출제될 때에는 판례의 내용이 출제지문에서는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숙지해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때에는 거의 대부분이 판례의 논거나 취지를 반대로 만들어서 출제하는 방식이 주된 경향입니다. 이는 기출지문을 많이 풀어보면 자연히 해결될 수는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의하겠습니다.

3. 2차 논문형 필기시험(사례 문제)을 대비한 중점적 강의진행사항

(1) 2차 시험에서는 2018년에 비하여 훨씬 당혹스런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① 준사례형 문제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출제되었습니다.

② 아주 오래간 만에 단문형식으로 '동시범의 특례'가 출제되었습니다.

③ 사례형 문제도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길게 늘어놓고, 결가지 상황들을 많이 심어 두어 핵심쟁점을 바로 추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④ 2020년도 2차 시험을 대비해서는 판례뿐만 이론쟁점까지 공부해야 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더욱 더 기본실력을 충실하게 다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기본기가 튼튼하면 타 수험생들 보다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차 사례문제에서는 더욱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강의특징

(2) 2차 시험에서 합격선을 훨씬 뛰어 넘은 고득점을 대비한 강의진행

①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사례 해결의 핵심입니다. 사례 문제는 100% 사실관계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객관식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결론만 물어보는 객관식 문제도 그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②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판례 사실관계 350선을 제공합니다.

사례문제로 출제되는 형식과 동일하게 정리된 학습교재인 판례 사실관계 335선을 제공합니다. 수업시간에도 함께 빠짐없이 읽어 보겠지만, 이 교재를 단 1회독만 하여도 2차 사례문제 해결의 80%는 이미 달성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판례 사실관계의 결론과 누적적인 기출표시를 말미에 달아놓음으로써 충분히 객관식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답안의 작성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똑같은 답안이라도 고득점을 하는 답안과 그렇지 못한 답안이 있습니다. 보통 형법 사례형 문제의 결론은 알겠는데 답안작성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형식의 목차구성을 할 것이며, 해당 논점을 서술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할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의하겠습니다.

④ 실제 답안 현출시에 사용할 간결한 표현, 판례문구 등을 정리합니다.

판례의 내용 이외에도 실제 답안을 작성할 때 사용해야 할 표현방식과 문구, 답안의 분량조절의 방법 등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⑤ 2차 시험에서 출제가능한 형법이론 사례문제들을 만들어 강의시간에 제공합니다.

출제가 예상되는 형법이론 사례문제를 만들어서 답안과 함께 제공합니다. 형법이론 사례문제는 출제패턴만 제대로 익히면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의합니다.

⑥ 형법각론 재산범죄를 중심으로 2차례에 걸쳐 제2차 대비 사례시험을 치루겠습니다.

㉠ 일단 1순환에서는 가장 출제 빈도수가 높은 재산범죄 부분을 출제합니다.

㉡ 2순환에서는 형법이론까지 포함된 사례문제를 출제합니다.

㉢ 일정은 추후 강의시간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 강의특징

(3) 법원 행정고시 사례 문제의 출제 패턴을 잘 숙지하게 하는 강의 진행.

- ① 변이나 사시는 이론쟁점이 함께 출제되기 때문에 출제 패턴이 확실하고 또 규칙성이 있어 상당 부분 출제될 쟁점들이 예측가능 합니다. 그러나 판례쟁점 위주로 출제되는 법행시험은 이러한 패턴을 익히기에는 판례쟁점이 너무 많습니다.
- ② 이에 따라 지난 9년간의 출제패턴을 분석해 보아도 단 한 번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 적이 없었으며, 지난 37회 시험은 예측할 수 없는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수험 전문가들도 출제 패턴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고, 수험생들의 입장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 ③ 게다가 지난 37회 시험에서는 형법이론 쟁점도 출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출제형태가 계속될 것인가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2차 시험 형법과목 점수도 최고득점이 지난36회에 비하여 10점이나 낮아졌습니다.
- ④ 2차시험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형법 사례를 푸는 전반적인 기본기를 습득하는 것입니다.
- ⑤ 많은 수험관계자들이 이야기 합니다. **“예전 사법시험 형태로 출제되는 것 같다.”**
- ㉠ 사법시험 2차 사례문제의 고득점 방법은 형법 판례를 중심으로 형법 전반에 걸친 내용의 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 ㉡ 간단하게 말하자면, 형법지식으로 충만한 내공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 ㉢ 지엽적인 부분 쟁점보다는 형법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중요판례의 내용을 학습한 수험생들에게는 결코 어렵지 않은 난이도였습니다.
- ⑤ 기본기가 충실하면 어떠한 변칙적인 출제패턴에도 아주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이어지는 2순환, 3순환 강의에서도 연속성을 가지고 체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형법총론 부분 보다는 형법각론 부분을 조금 더 많이 강의합니다.

- ① 법원행시는 총론보다는 각론 부분이 더 많이 출제됩니다.
- ② 이러한 법원행시의 출제형식에 맞추어 변이나 사시에서와는 달리 각론 부분에 더 많은 강의시간이 할애될 것입니다.
- ③ 그러나 지난 해 보다는 총론강의도 많이 합니다.

# 진도별 강의내용

회 차	일 정	강 의 내 용	
1	1/28(화)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적용범위, 행위의 주체(법인)
2	1/29(수)		부작위범/상당인과관계/구성요건적 고의, 사실의 착오
3	1/30(목)		과실범/결과적 가중범
4	1/31(금)		위법성론
5	2/1(토)		책임론(1)
6	2/3(월)		책임론(2)/미수론(1)
7	2/4(화)		미수론(2)/공범론(1)
8	2/5(수)		공범론(2)
9	2/6(목)		공범론(3)
10	2/7(금)		죄수론
11	2/8(토)		형벌론
12	2/10(월)	【형법각론】	생명·신체에 대한 죄, 자유에 대한 죄(1)
13	2/11(화)		자유에 대한 죄(2)/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4	2/12(수)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재산에 대한 죄(1)
15	2/13(목)		재산에 대한 죄(2)
16	2/14(금)		재산에 대한 죄(3)
17	2/15(토)		재산에 대한 죄(4)
18	2/17(월)		재산에 대한 죄(5)
19	2/18(화)		재산에 대한 죄(6)
20	2/19(수)		재산에 대한 죄(7)
21	2/20(목)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1)
22	2/21(금)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2)
23	2/22(토)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1)
24	2/24(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2)

※ 예정진도는 실제 강의진도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